

동구,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및 구민의견수렴조사 연구용역' 보고회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22일 구청 갈매기홀에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및 구민의견수렴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8월~12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구청 아동 관련 사업부서장 및 기관장들에게 공유하며 아동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됐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에는 구민이 느끼는 아동친화인식 수준을 6개 아동친화영역을 통해 파악하는 표준 조사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을 설정하는 구민의견수렴조사가 포함됐다.

동구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후속 과제인 아동요구확인조사와 제3차(2027~2030) 아동친화도시 정책수립 연구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연구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간신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18년 8월 인천에서 2번째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고 오는 2027년 상위단계 인증 간신을 앞두고 있다.

강화군, 주민 디지털 역량

쑥쑥... 정보화 교육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운영한 군민 정보화 교육이 지난 12월 20일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올해 교육은 강화군행복센터 디지털배움터에서 컴퓨터 기초부터 AI 활용까지 총 64개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1,500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 디지털 생활 역량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과정은 컴퓨터 기초 조작법, 스마트폰 앱 사용하기, 키오스크로 커피 주문 연습, AI 간편 활용법 등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수업을 통해 패스트푸드 주문이나 병원 접수 방법을 배우며 호응을 이끌었다. "이제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는 후기도 남기기도 했다.

내년에는 64개 과정에 1,792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선착순 전화접수로 진행되며, 접수 및 기타 문의는 자치교육과(☎032-930-3463)로 하면 된다.

내년에는 특히 직장인의 참여가 많은 저녁 반에 창업을 위한 컴퓨터 활용 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AI 관련 교육 과정을 확대·편성하여 군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수원특별시의회 신청사 개청

인천시, "Venture Incheon 2025 대회" 성황리 개최

우수 벤처기업 33곳 표창... 힘든 여건 속에서도 혁신 아끈 기업 격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벤처기업협회(회장 서동만)는 12월 23일 송도 리마다호텔에서 'Venture Incheon 2025 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우수 벤처기업인들을 격려했다.

'Venture Incheon 2025 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인천지역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의 핵심축인 벤처산업의 결집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인천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벤처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인천지역 벤처기업 33개 사가 유관기관으로부터 표장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은 ▲㈜인일정공, 인성금속㈜, ㈜대일산기가 수상했으며, 인천광역시장 표창은 ▲㈜동원하이텍, ㈜윤바이오테크, ㈜태승정공, ㈜엠디에스, ㈜태원이엔지, ㈜환경솔루션, ㈜삼원테크, 흥영테크, 와이에이치㈜, ㈜엘비에스테크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아주화장품, 기주산업㈜, 세일정밀공업㈜, ㈜가람환경기술, ㈜쿠달, ㈜제이앤제이, ㈜리젠티안아이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금강특차, ㈜경인기계가 인천지방조달청장 표장을 받았다.

이 밖에도 ▲㈜세림하이텍, ㈜비오엘, 더플로우, 유지스탠다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표창, ▲㈜에스씨코퍼레이션, ㈜엘비이에

스, ㈜에이디에스, 에스비환경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표창, ▲씨원메디칼, 시냅스, 큐밸린은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표장장을 수여했다.

한편 의료관련감염병 중 하나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감염증(CRE 감염증)은 기존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고위험 내성균으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직·간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 시 폐렴, 요로감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며 치명률 또한 높아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감염병이다.

올해 전국 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1일 기준 4만6,870건(점검)으로 집계됐으며, 인천시 역시 연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2,983건, 2024년 3,601건, 2025년에는 3,702건으로 전년 대비 101건 늘어났다.

이에 인천시는 질병관리청의 2025년 시범사업인 'CRE 감소 전략 사업'에 참여해 인천형 CRE 감소 전략 사업인 'I-CRE ZERO'를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인식(Awareness), 예방(Barrier), 관리(Control)의 단계별 전략을 통해 의료기관 단독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심하린 기자

도성훈, 인천지역 10개 대학 총학생회 초청 간담회 참석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0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인천 지역 10개 대학 총학생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사)인천청년청을 비롯해 인천대학교, 겐트대학교 등 인천 소재 10개 대학 총학생회 임원과 사

범대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주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시대 공교육의 역할과 인공지능 활용 교실 수업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지역 10개

대학 총학생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자율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은 인천시 교육청이 지향하는 학생성공시대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며 "시대 변화를 읽고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인천교육의 '읽걸쓰' 철학과도 결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 임원진의 활동은 인천 학생들에게 선배 시민으로서 좋은 귀감이 된다"고 격려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총학생회 임원들은 전공과 연계한 교육봉사와 전시활동 등을 중·고등학생에게 확대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며 "앞으로 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협력해 학생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남동구, 폐기물 치매립 금지 선제 대응

남동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치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소각시설과 손잡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남동구는 지난 22일 관내 민간 소각시설인 ㈜그린스코(주)일지서비스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린스코(연간 3만t)와 ㈜일지서비스(연간 3만 5천t)는 총 6만 5천t의 생활폐기물처리기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이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연간 생활폐기물 전량(약 5만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남동구는 현재 연간 전체 생활폐기물 중 86%를 송도 공공 처리시설에서 처리 중이며, 해당 시설의 정비기간에 만 수도권매립지에 약 14%를 치매립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치매립 금지 시행 이후 송도 공공 처리시설의 정비기간에 갈 곳이 없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을 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치매립 금지 시행 이후 송도 공공

처리시설이 정비로 인해 가동이 중단될 경우 민간 소각시설 2곳에서 남동구 생활폐기물을 일일 약 100t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두 시설의 일일 소각용량의 57% 규모로 필요 시 별도 합의에 따라 반입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남동구의 생활폐기물 일일 배출량은 약 139t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체 배출량의 약 72%에 해당하는 물량의 처리 대안을 확보하게 됐다.

구는 나머지 물량도 치매립 금지 예외 조항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거나 관내 재활용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치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폐기물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처리시설 처리비용과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옹진군 '자월달빛 천문과학관' 개관식



천문과학관은 총사업비 55억의 재원으로 24년 8월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도 23일 개관에 이르게 되었다.

자월 달빛 천문과학관은 천체 관측 및 교육 프로그램과 탐방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며 자월달빛 천문과학관 옆에 천문카페가 자리잡고 있어 방문객의 쉼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천문과학관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천문과학관이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수구, '송도세이프가드(S.S.G)' 발대식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2일 저녁 7시 연수구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송도세이프가드 참여자와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해 송도국제도시 안전 강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송도세이프가드는 지역주민이 송도 동내 안전위협 요소를 신속히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적극 대응하는 실시간 안전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만들어졌다. 총 92명이 자원봉사자로 지원했다.

송도세이프가드는 내년 말까지 송도 지역 내 안전위협 요소를 신속히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적극 대응하는 실시간 안전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만들어졌다. 총 92명이 자원봉사자로 지원했다.

송도세이프가드는 내년 말까지 송도 지역 내 안전위협 요소를 신속히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적극 대응하는 실시간 안전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만들어졌다. 총 92명이 자원봉사자로 지원했다.